광주 기간제교사 선착순 모집 논란

일선 중·고교 교사 채용 응시원서 선착순 마감
공고문 늦게 본 수험생 응시 기회조차 갖지 못해

광주지역 일선 중·고등학교가 인력풀에 등재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원서를 선착순 마감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중·고등학교는 정규교사의 휴가나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면 주로 학기 초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중·고 기간제교사 채용 권한은 일선 학교장에게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채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가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을 대상으로 기간제교사를 모집하면서 선착순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과 함께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착순 마감이다보니 기간제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교사들은 언제 게시될 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매일 수시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 교사들은 "보통 채용인원의 3배수를 선착순 모집하는데 실력과 상관 없이 홈페이지 공고를 먼저 보고 클릭하는 수험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러 학교에서 같은 과목의 기간제교사를 모집할 때 한 응시자가 여러 학교에 지원할 경우 다른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학교들이 업무 경감을 위해 선착순 모집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청이나 학교 행정실 등 특정 조직에서 기간제교사 채용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선착순 모집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고일자를 통해 일정 기간 원서를 접수받으라고 일선 학교에 요청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인력풀 등재 유형에 시험을 보지 않는 학교장 추천제를 올해부터 도입한 것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학과 전공시험을 통해 인력풀을 구성했으나, 현재 학교에서 근무중인 기간제교사들은 시험 없이 학교장 추천만으로 인력풀에 등재될 수 있다.

학교장 추천제는 6개월 이상 근무자와 교육청 연수 이수 등의 조건이 있으나 채용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인력풀 확대 필요성이 있었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들은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장 추천제를 도입했다"며 "실력을 인정받은 기간제교사들을 인력풀에 등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간제교사 354명이 인력풀 전형으로 채용됐으며 현재 인력풀 등재 인원은 1790명이다. 올해 시험으로 331명이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됐고 144명은 학교장 추천으로 명단에 올랐다.

조인호 기자

경찰, 여름방학 불법 운전교육 특별단속

경찰이 여름방학 기간 불법운전 교육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3일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방학 기간 운전교육 불법행위와 운전면허 부정발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9월1일까지다. 단속(점검)반은 각 지방청 면허(교통)계장, 운전학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장과 운전면허계장 등은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해 말 장내기능시험에서 경사로와 'T자 코스'(직각주차)를 부활시키는 등 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초보운전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56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04건)과 비교했을 때 37.8% 가량 낮아진 수치다. 문제는 장내기능시험 제도개선 전 92.8%의 합격률을 보였지만 시행 일주일간 30.3%로 급락했다. 6개월 평균 역시 54.0%로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불법 교습이 우려됐다.

이에 경찰은 실내운전연습장과 연계해 교육생을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 불법운전교육을 받게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지문 등 오류로 인한 출석처리시 작성하는 확인서 등을 점검해 운전면허 부정발급 사례 여부를 확인한다.

장마 소강상태, 연꽃 구경하는 시민들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3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조천연꽃공원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연꽃을 보며 산책하고 있다.

6월 전국 강수량, 기상 관측 이래 3번째로 적었다

지난달 강수량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3번째로 적은 '6월 강수량'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평균 최고기온은 두 번째로 높아 무더위 속 전국적 가뭄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강수량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6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158.6㎜) 대비 38%에 불과하고 같은 달 기준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224.4㎜로 평년(463.9㎜)과 비교해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전국적 비는 2차례에 불과했다.

6~7일 중부지방으로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26일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다.

25~26일에는 서울·경기도 및 경상도, 전라도,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특히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25일 합천에서는 강수량이 148.0㎜로 관측 이래 일 강수량 1위를 경신했다.

지난달 기온은 전·후반 변화가 크게 나타나면서 결국 전국 평균이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반에는 우리나라 부근에 위치한 상층기압골의 영향으로 상층의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최고 및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하지만 후반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자주 들어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 낮 동안의 강한 일사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18~23일에 내륙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특히 18~19일과 23일에는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 일부 지역에서는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출소 한달만에 또 인터넷 사기행각 20대 구속

출소 한달여 만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구속됐다.

나주경찰서는 3일 인터넷 등에서 물건을 싸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여 동안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무선 헤드폰,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싸게 판매 한다고 속여 정모(28)씨 등 79명으로부터 19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며 한달여 만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 등에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정씨 등에게 접근해 물품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한 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갓길 있던 운전자 숨지게 한 뺑소니범 입건

광양경찰서는 3일 고속도로 갓길에 있던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강모(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께 광양시 진상면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26㎞ 지점인 수어천교 편도 2차선 도로(옥곡 IC~진원 IC)에서 운행하던 25t 트럭으로 K5 렌터카 운전자 A(25)씨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뒤 갓길로 피해 있던 A씨를 강씨의 차량이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K5는 1~2차로 중간 지점에 역방향으로 서 있었으며, 강씨가 K5를 피해가려고 갓길쪽으로 주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 "단독사고가 난 K5를 피해 주행했다.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 2일 강씨를 검거했으며, 강씨의 차량에 남겨진 혈흔을 감정 의뢰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양=김충권 기자

창원 '골프연습장 살해' 용의자들 서울서 검거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인한 뒤 도주한 용의자 2명이 도피 9일만에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모텔에서 창원 골프장 납치 살인 용의자 심천우(31)씨와 강정임(36·여)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A(47·여)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오후 9시59분께 '장기간 숙박 중인 남녀가 있는데 의심스럽다'라는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해 이날 심씨와 강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모텔에서 머물면서 도피행각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찰이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심씨와 강씨는 해당 모텔에서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하지만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같은 모텔에 다시 숙박하러 온 심씨와 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숙소에 들이닥쳐 공개수배 전단지와 대조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체포 당시 '창원 골프연습장 살인 사건' 관련자가 맞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심씨와 강씨는 옷가지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소지하고 있었다. 심씨는 흰색 웃옷에 검은색 바지를, 강씨는 아이보리색 치마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심씨와 강씨는 범행 이후 광주와 전남 순천 등지를 드나든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이는 등 도피 행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 28일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 이들의 모습이 담긴 수배전단지를 배포했다.

용의자 3명 가운데 심씨와 강씨를 제외한 심모(29)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30분께 함안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납치된 40대 여성은 27일 오후 6시6분께 진주시 진수대교 밑에서 마대자루에 담긴 채 발견됐다.